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창41:38-41)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잠잘 때 꿈도 잘 꾸었고 또 미래를 향한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이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요셉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있어도 외국에 팔려가도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해 주변이 잘되고 형통해집니다. 애굽 바로왕 경호실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잘됩니다.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데 그 모습에서 바로 왕은 요셉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창41:38-39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칭찬을 왜 듣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꿈 해석을 잘한다는 애굽 왕의 칭찬을 들은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겸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당시에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가이드포스트지>에 실린 탁구선수 현정화의 간증입니다. 16년 동안의 선수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경기로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를 꼽고 있었습니다. 당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은퇴하려 했던 현정화는 대회의 대표선수로 뽑히면서 힘겨운 훈련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녀는 마침내 준결승전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중국 선수를 상대로 완승을 얻었습니다. 우승을 거머쥔 그 순간 그녀는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길을 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과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단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생활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가정생활 잘하고 자녀 낳고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 지혜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지혜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속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롬12: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훈계와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잠5:22-23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29: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창19: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잠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창41:38-39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1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지혜의 성령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잠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삶을 위해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시39: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비로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살다 갈 것인지 연한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얼마였으며 남은 날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들도 지혜로와야 합니다.

잠23:19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15: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도 지혜로와야 합니다.

잠23: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왕은 나라를 복되게 합니다.

왕상3:9-10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

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리라

지혜로운 신하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창41:39-41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좋습니다.

행6: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꾼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 확진등의 질병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과 부차적인 문제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소홀이 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잘 알아서 살고 있는가?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그분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많은 상황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91:1-3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91:6-7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어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2021년 9월 특별새벽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참여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